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거대한 산소 발생지인 바다는 우리 인간을 숨 쉬게 하고, 각종 해조류부터 물고기까지 제공하는 커다란 식량 창고로서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는 세계 어디라도 연결해 주는 물류의 통로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대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제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행된 과도한 인간활동, 최근 한층 더 심해진 기후변화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던 해양환경을 해치고 바다의 생물다양성⁽¹⁾을 감소시키면서, 생태계가 제공하던 다양한 혜택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전성을 되찾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과제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 첫째, 건강한 바다는 인간의 복리와 생존은 물론, 지구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의 과도한 인간활동은 바다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다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바다 환경의 복잡한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해양과학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 둘째,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가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오염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산호초, 맹그로브숲, 해초지, 조간대, 갯벌 지역의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점점 깊은 바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활동이 해양을 위협하는 복합적 스트레스가 되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물론 생태계서비스⁽²⁾를 제공하는 서식지의 역량까지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서식지에 대하여 우리는 즉각적인 보호, 보전 및 복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셋째,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물질이 끊임없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양염⁽³⁾, 독성 화학물질, 중금속,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 축적되면서 생태계 기능은 불안정해지고, 자연자원이 훼손됨으로써 경제적 손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넷째,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조절과 완화 과정에서 바다 환경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양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에 녹아 있는 산소가 결핍되며, 해양생물의 분포가 바뀌고, 열파와 열대저기압이 강화 됩니다. 또한, 인간활동으로 과도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바다를 점점 산성화시킵니다. 전 지구촌의 전문가들은 해양과 대기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각국 정부는 새로운 관리전략을 개발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변화된 기후환경에 인류가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 다섯째, 어업은 인류의 식량과 영양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수산물에 대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늘어나는 인류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 금지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고갈된 어류자원을 회복시키고, 환경친화적 양식을 병행하여 수산물 생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해양 건강성 악화

그동안 해양자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그로 인해 해양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온전성은 저하되었고, 필연적으로 해양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해양의 건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해양을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보호하는 일은 과학자료와 지식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며, 해양과학을 얼마나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총체적 시각으로 해양을 살피려면 인류 전체가 해양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생태적 혜택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⁴⁾을 설정하는 방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어패류 자원을 유지·변성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유네스코는 인류 모두가 해양교양⁽⁵⁾을 갖추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해양교양'이라는 유네스코의 담론은 전 인류가 바다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면 해양보전을 위한 행동에도 적극 나서게 될 것이란 관점에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강조합니다(UNESCO, 2020a). 이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인류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해양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넓고 깊은 바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다학제적 특징을 지닌 해양과학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2. 서식지 파괴

연안지역에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토지 간척과 담수 개발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구축 요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 서식지는 파괴되었고, 생물들은 지속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서식지의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오염, 외래종 침입,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구, 해초지, 산호초, 굴밭, 염습지, 대형해조숲, 맹그로브숲 같은 주요 연안서식지 생물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으며, 이 생태계와 연계되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안서식지는 생물다양성과 해양생물의 세대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축적되고, 그 생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조류의 사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해수에 녹아 있는 산소가 소모되어 빈산소 해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류를 비롯한 각종 해양생물의 집단 폐사까지 발생합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유해물질은 생물 체내에 잔류됩니다. 먹이망⁽⁶⁾ 내에서 높은 영양단계의 생물일수록 유해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성장과 생식에 지장을 줍니다. 일부 화학오염물질은 오래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중금속을 포함한 잔류성 유해물질은 수산물에 축적되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산업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Photo: Unhyuk Yim

특히 먹이가 풍부하여 어린 물고기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연안 서육장은 그 자체로 해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IPBES, 2019). 서식지 훼손 문제는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먼 바다, 심지어 심해에서도 나타납니다. 해양서식지 환경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현재 손상된 서식지는 온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복원시켜야 합니다.

3. 환경오염물질

내륙에서 행해지는 인간활동과 연안에서의 양식활동으로 영양염과 유기물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해양에 유입되면, 조류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이 이들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일부 조류에서 생산된 독성물질은 그 조류를 먹이로 하는 해양동물에

부실하게 관리된 육지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드는 양은 연간 약 800만 톤에 달합니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은 몸체에 걸린 플라스틱 때문에 숨지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해를 입기도 합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매개체로 각종 병원균과 비토착생물종이 확산할 수도 있고,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과 어구를 파손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 선박의 프로펠러에 얽혀 가동을 멈추게 하거나 냉각 시스템을 오작동시키는 등 안전운항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쳐 관광업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경우는, 플랑크톤처럼 작은 생물부터 고래처럼 큰 대형 생물에 이르기까지 해양 먹이망의 모든 단계마다 발견되고, 심지어 우리의 먹거리인 수산물에 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Korea/
Photo: Hyun Woo Kim



4. 기후변화

대기 중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후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전 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야심 찬 목표를 세워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이래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30%가 해양으로 흡수되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도 했지만, 해양의 생지화학과정⁽⁷⁾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IPCC, 2019).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해류 흐름과 혼합 특성이 바뀌어 바다가 인류에게 주는 갖가지 유익한 점, 말하자면 식량 공급, 탄소저장, 산소 생산, 기후 안정화와 같은 순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의 열팽창 현상은 극지방의

빙하와 만년설이 녹는 과정에서 나온 물과 합쳐져 해수면을 상승시키는데, 그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은 연안지역의 수물 위험을 초래합니다.

해양생물들은 오랜 기간 안정된 바다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 환경이 급격히 바뀔에 따라 해양생물들은 호흡, 번식, 초기 발달, 성장 등의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생존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특히, 조개처럼 탄산염 껍데기를 지닌 생물들은 해양산성화로 단단한 패각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집니다. 기후변화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산소가 거의 사라진 '죽음의 해역'⁽⁸⁾이 확장되면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체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IPCC)'는 역사상 전례 없이 악화되는 바다 환경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우선순위를 정해 시의적절하고 야심 찬 행동 조율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IPCC, 2019). 한 가지 분명한 우선순위는 바다에 남아도는 영양분을 활용하고, 광합성을 촉진시켜 산소를 생산하며, 탄소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해주는 해초지, 대형해조류, 맹그로브숲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때입니다.

5. 남획

인간이 수획하는 수산어획물 중 약 34%는 이미 자원이 남획된 상태에서, 그리고 60% 정도는 최대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된 것이므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거의 철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과 서식지 환경 악화, 오염, 페어구 등으로 인한 폐사로 수산자원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어획어업 생산량은 거의 정체되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 8,440만 톤 정도라도 전 세계 어업생산량을 유지하려면 해양생태계 관리 방침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먹이망 상위영양단계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면 해양생태계가 불안정해져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해양생물 군집에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됩니다. 또한 축산업과 양식업에 필요한 사료 공급을 위해 경제성이 없거나 심지어 어린 물고기까지 남획하는 횡포는 이미 고통받고 있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연간 최대 2,590만 톤으로 추정되는 어류가 IUU 어업으로 잡히는데(FAO, 2016), IUU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하고, 수산업에 의존하는 43억 명 인류의 영양상태를 위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식 생산량 (어류, 무척추동물, 수서식물)은 2018년 기준 1억 1,450만 톤에 달하며,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FAO, 2020). 양식업은 이미 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의 50%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식어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Korea/
Photo: Cheol Beom Kim





■ © KIOST/Photo: Joon-Yeon Chung

‘생물다양성협약 (CBD)’,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등 여러 국제기구들 또한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도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바다를 이해하고 보전하는 행동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국제한림원연합회 (IAP)는 각국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IAP 회원 아카데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 바다에 관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돕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과학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며, 누구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해양지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과학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돕는 체계를 수립 · 확대하고, 연구역량 개발과 해양교양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바다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활동을 조직한다.
- 연안과 민감한 해양서식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한다.
- 환경 오염원을 평가하고, 오염원의 분포, 이동경로 및 오염원이 해양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아울러 육지에서 시작된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바다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수단을 개발한다.
-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해수의 산성화, 빈산소화, 해양생물의 이동과 변화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업어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IUU 어업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며,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기술이 적용된 해양 양식업을 육성한다.
- 인류 사회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바다가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인간 거주를 적합하게 유지해 준다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양교양을 높이는 교육을 장려한다.

양식어업에 쓰이는 어린 물고기를 주원료로하는 생사로 사용 비율을 줄이고, 효율적인 배합사료의 개발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실천적 개선의지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6. 결론 및 권고사항

바다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각종 생산물과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 다양한 오염물질의 축적과 그로 인한 누적 영향, 해양생태계에 대한 무관심은 바다 환경을 날로 악화시킵니다. 바다는 우리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 Photo: Deokbae Park



다양한 환경과 생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다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처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지구생명체를 온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한 때, 우리 인류는 바다가 무한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생각은 착각이고 오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가 계속해 살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바다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찾아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ASAC, 2016). 뿐만 아니라, 나이와 국적을 초월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보호운동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2021-2030)’을 선포한 UN은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해양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UNESCO, 2020b).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해양교양을 배양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고, 전 지구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거대하고 본질적인 해양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Photo: Wonjoon Shim

인용문헌

EASAC, 2016. Marine Sustainability in an Age of Changing Oceans and Seas. Reports and Statements, 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 (EASAC). Available online; retrieved 24 May 2020. <https://easac.eu/publications/details/marine-sustainability-in-an-age-of-changing-oceans-and-seas/>

FAO, 2016. The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vailable online; retrieved 24 May 2020: Rome: FAO. <http://www.fao.org/port-state-measures/en>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Available online; retrieved 9 June 2020: <https://doi.org/10.4060/ca9229en>

IPBES, 2019.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S. Díaz, J. Settele, E. S. Brondizio E.S., H. T. Ngo, M. Guèze, J. Agard, A. Arneth, P. Balvanera, K. A. Brauman, S. H. M. Butchart, K. M. A. Chan, L. A. Garibaldi, K. Ichii, J. Liu, S. M. Subramanian, G. F. Midgley, P. Miloslavich, Z. Molnár, D. Obura, A. Pfaff, S. Polasky, A. Purvis, J. Razzaque, B. Reyers,

R. Roy Chowdhury, Y. J. Shin, I. J. Visseren-Hamakers, K. J. Willis, and C. N. Zayas (eds.). IPBES secretariat, Bonn, Germany. 56 pages.

IPCC, 2019: IPCC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H.O. Pörtner, D.C. Roberts, V. Masson-Delmotte, P. Zhai, M. Tignor, E. Poloczanska, K. Mintenbeck, M. Nicolai, A. Okem, J. Petzold, B. Rama, N.W. Weyer (eds.)].

UNESCO, 2020a. Ocean Literacy Portal. Available online; retrieved 16 May 2020: <https://oceanliteracy.unesco.org>

UNESCO, 2020b.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 Available online; accessed 24 May 2020: <https://en.unesco.org/ocean-decade>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서식지로 구분하는 생태계 다양성, 생물 종류의 구성에 관한 생물종 다양성, 다양한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적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공급서비스), 비물질적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서비스) 혜택을 통칭한다.

Photos: IAP/Peter McGrath

- (3) **영양염**: 농경지의 비료, 도시의 생활하수 등에 녹아있는 질소, 인, 규소 등의 무기질로서, 강을 통하여 바다로 들어가면 식물플랑크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
- (4)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 (5) **해양교양**: 지구 전체와 모든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바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다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형태이다.
- (6) **먹이망**: 생물들이 섭식과정을 통하여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인 먹이연쇄의 조합으로, 먹이망 내에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식물과 이들을 섭식하는 초식동물은 하위영양단계에, 작은 동물을 포식하는 커다란 동물은 상위영양단계에 위치한다.

- (7) **생지화학 과정**: 지구 생태계에서 영양염 등의 화학물질이 생물권, 수권, 지권을 거치면서 순환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 (8) **죽음의 해역**: 영양분이 과다하게 바다로 공급되어 플랑크톤이 대규모로 증식한 이후, 이들이 죽어 사체가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 속의 산소가 고갈되고, 따라서 산소 호흡을 하는 해양생물들이 살 수 없는 해역이다.

본 '해양환경보호' 국문 성명서는 2021년 6월에 공표되는 IAP Statement o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부가적 설명이 추가되었음을 밝힌다.

해양환경보호 영문 성명서 작성 위원 *가나다순
 강수경, 국립수산물학원
 김수암 (위원장), 부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김종성, 서울대학교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hristopher Brown,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 Pilot Program

국문 성명서 작성 위원 *가나다순
 강수경, 국립수산물학원
 김수암 (위원장), 부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김종성, 서울대학교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재형,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화현, 부경대학교
 조정현 (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영호 (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지지기관]

*가나다순

POSTECH	인천항만공사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제주대학교
국립수산물학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군산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공학한림원
극지해양미래포럼	한국과학창의재단
기후변화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수산물학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전기연구원
대한조선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한국천문연구원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	한국항해항만학회
부산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부산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한국해양학회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월든	한동해지역개발원

본 성명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제안하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국제한림원연합회를 통해 2021년 6월 1일 전세계에 공표되었습니다.

iap SCIENCE
HEALTH
POLICY
the interacademy partnership

설립연도 1993년

설립목적

회원국 한림원과 함께 국제 현안에 대해 공공을 대변하고 과학적 견해 및 국제과학기술계의 목소리 전달

회원현황

100여개국 143개 한림원

운영구조

과학(Science), 의학(Health), 정책(Policy) 등 3개의 분야별 조직과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4개의 권역별 네트워크 보유

주요활동

- 주요 현안에 대한 성명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자문 제공

- 총회 및 워크숍 개최

(매년 30회 이상의 회의 지원 및 개최)

- InterAcademy Project 등 글로벌 정책연구 진행

- 과학자, 정책결정자, 대중, 매체 간의 소통 지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요 활동 내역

- IAP for Science 이사국 연임

(1차: 2016-2019, 2차: 2019-2022)

- IAP의 아시아지역 네트워크 담당 지부인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AASSA,

회장 김유항 (인하대 명예교수)) 사무국 운영

- 2019 IAP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

(인천 송도, 80여개국 120여명 참석)

- 각종 위원회, 프로젝트 및 보고서 발간에 참여